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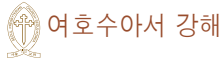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갈렙의 신앙 I

(여호수아 14:6 ~15)

이종윤 원로목사

역사상 획을 긋고 나가는 위대한 인물로 인해 그 옆에 있던 이들이 그 그늘에 묻혀 별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보면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의 역할 역시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 조연 때문에 주연이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거장 옆에 서 있던 갈렙이 바로 그런 경우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도 없고, 그에 대한 기사도 여호수아에 세 번, 그것도 매우 짧게 나타나고 그 밖의 책에 몇 차례 나타났을 뿐이다. 우리는 그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백성들 또한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 장군 옆에서 그와 더불어 항상 전쟁에 임했다.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날 무렵, 그들은 그 땅을 지파 별로 분배하게 되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장군은 땅 분배를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을 기점으로 주길 요청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는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다. 그니스는 유다 족속이 아니다. 그니스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나타난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창 15:18 - 21).

이렇게 볼 때 갈렙은 이방인이다. 적어도 그의 아버지가 그니스 사람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들 조상 중에 누가 유대인과 함께 있다가 노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는 그 아버지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I. 뚜렷한 역사 의식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을 처음 만날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탐꾼 12명을 선발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지 2년이 되어 아직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고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신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갈렙에게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

었다.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갈렙 장군은 처음부터 헤브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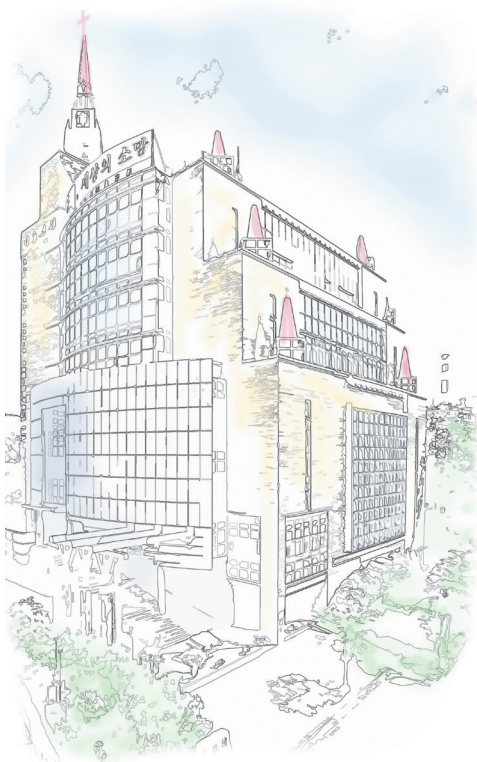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칠 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새와 달매가 있었더라”(민13:21, 22).

유대인들에게 헤브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묻힌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아곱의 무덤이 있고 요셉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혼이 깃든 그 땅을 새로운 유대 백성이 된 갈렙이 보기를 원했고 자기가 그 땅을 상속받고 싶어 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헤브론에 대한 정탐꾼들의 견해는 갈렙과 달랐다. 그곳엔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았다. 그 땅을 정탐한 이들은 한결같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정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보고를 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헛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약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도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민 13:27~33)

이 보고는 물론 과장된 것이었다. 그 땅 모든 거민이 다 거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본 그 백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네피림이란 거인족으로 영웅을 말하는 것이다(창6:4).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다고 했다.



2018 사명자 대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로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삼아주소서!

10. 7(주) ~ 11. 25(주) (50일간)

2018 사명자대회(위원장 안인호 장로) 준비가 매 주일, 기도 모임을 가지며 준비 중이다.

서울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설립되었고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서울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2018 사명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성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 주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로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삼아주소서

•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 말씀

- 1) 매일 말씀을 읽는다.
(교회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추어서)
- 2)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상한다.
- 3)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 기도

- 1) 자율기도 : 50일간 개인별 기도한다.
(50일간 각자 개인의 기도처소에서 스스로 작성한 기도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기도한다.)
- 2) 느헤미야기도 : 느헤미야가 수일동안 슬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서울교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기도를 매일 3분 이상, 50일간 진행한다.

• 특별새벽기도회

11. 19(월) ~ 11. 24(토) 새벽 05~06시

• 특별새벽기도회 찬양대

- * 11월 19일(월) : 가브리엘 찬양대
- * 11월 20일(화) : 할렐루야 찬양대
- * 11월 21일(수) : 임마누엘 찬양대
- * 11월 22일(목) : 은빛 찬양대
- * 11월 23일(금) : 시온 · 호산나 찬양대
- * 11월 24일(토) : 베들레렘 찬양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기도제목

- 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 ②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 ③ 우리에게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주신 성령님 복음의 빛진 자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내 나이만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성삼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 ④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과 그 복음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 교회로 새롭게 하소서,
- 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실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 ⑥ 서울교회를 향한 각종 송사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판단케 하시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민의랑 정병무·박경희 채교천·정금희 최인애 최근자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은마상가 주차 제한 9월 23일(주)

은마 종합상가 사무소에서 다음 주 9월 23일(주)은 추석연휴를 맞아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교회앞으로 보내왔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하박국 전장(1~3장)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일 시: 11월 4일(주)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단, 미취학 교육1국은 하박국 3장
* 신청 :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 - 김혜연 집사
일반 장년 성도 - 사무국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일 시: 11월 17일(토) 오후 1시
3. 시상 및 발표 :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2018 사명자대회

우리에게 사명자대회란!



1. 사명자 대회의 시작

사명자대회의 유래는 서울교회의 설립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현교회를 나온 성도들 160 여명이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을 빌려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991년 10월6일의 일이었다. 이 날 모인 성도들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날을 기점으로 50일 후는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준비위는 오순절의 의미를 따서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설립일로 정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7주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사명자대회』가 된 것

이다. 사명자대회는 초창기에 『비전2000운동』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주후2000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기 위함이었다.

사명자대회는 기도운동이요, 전도운동이다. 교회는 이 기간에 태신자를 정하고, 24시간 연속기도회와 금요심야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 등 기도운동과 노방전도, 축호전도, 찬양전도집회 등의 전도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또 잃은 양 찾기, 교회학교와 다락방배가운동을 펴기도 했다.

2. 기도 운동

교회는 이 기간에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체계적인 기도를 위해 몇가지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문을 성도들에게 배포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

또한 매일 정오에 전 성도가 비전2000운동의 결실을 위해 기도하자는 '정오의 기도'가 1994년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1995년부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2-3분간 기도하는 '다니엘기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로 이 기도는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한다해서 '열열이기도'로 명명됐다.

50일동안 진행되는 기도회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4시간 연속기도회'였다. 예배당 내 한 방을 기도실로 정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식적인 예배와 집회시간 외에는 24시간내내 기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성도들은 지정된 시간에 기도실에 와서 태신자명단과 중보기도카드를 보고 기

도 릴레이를 이어갔다. 교회는 24시간 기도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속기도회 명부를 작성해 기도자 수와 시간을 안내했다.

3. 전도 운동

사명자대회는 기도와 함께 전도에 주력하는 대회인 만큼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일깨웠다. 이 기간 동안 『태신자초청전도잔치』를 비롯해 교구별, 부서별 노방전도, 각 선교교회와 교회학교의 자체 초청잔치 및 이삭줍기운동을 통한 잃은 양 찾기, 교구 및 다락방의 배가운동 등 다채로운 전도의 향연을 펼쳤다.

태신자란 어머니 배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하듯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로 하고 마음에 품은 대상을 의미한다. 2000년부터는 사명자대회기간동안엔 각 부서와 교회학교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사명자대회의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회의 미래를 꿈꾸기 위함이다. 당면한 서울교회의 앞날은 오직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분명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와 함께 하시리라.

올해도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다시 쓰임 받을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위해, 기필코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할 조국을 위해, 그리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 바란다. (편집부)

나의 하나님

나의 서울교회, 희엘이의 서울교회



오세정 집사 (12교구)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 나왔던 서울 교회에 제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전해 들던 교회의 모습을 막상 눈으로 마주했을 때 주책스럽게 터져 나왔던 눈물은 넉 달여의 시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고 순수한 웃음과 감사로 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하심을 사모하면서 갓 돌 지난 아기와 매일 새벽을 가르던 6월의 기쁨, 26년전 어느 새벽, 논현동의 교회 복도에서 지나가던 저와 동생들을 불러 세우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시던 원로목사님께서 오늘의 새벽, 나의 아이를 위해 다시 한번 축복을 기도 해주실 때의 감격, 아직은 혼자 걷지도, 혼자 먹지도 못하는 아가들이 작은 홀 안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아기 단풍 같은 손으로 참된 교회의 역할을 직접 책으로 만들어 보던 7월 영·유아부 수련회의 추억, 매 주일 친손주처럼 아이를 안고 어르고 맞아주시는, 이제는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연세도 드셨지만 그만큼 더 온화하고 거룩함이 녹아나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미소, 협소한 공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아리떼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아가에게 찬양과 울동을 가르쳐 주며 가르르 대던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 불법과 악행들로부터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 내 생활, 내 한 몸 따위 내어놓는데 주저치 않던 내 사랑하는 오랜 친구들의 든든한 등.

그리고 현실의 한 조각도 양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을 위해 두려움없이 맞서는 이 시대

의 루터, 부목사님들의 그 어느 때 보다 따스한 손.

지난 넉 달의 시간은 28년전 절망과 감감함과 억울함 가운데서 하루 하루 기적같은 기쁨과 웃음과 감사로 서울 교회를 세워 나가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로이 느끼고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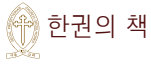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주, 딸아이의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복 중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 준 후에 그 무엇보다 고민하던 것이 아이의 유아세례였습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종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고 복된 첫 순간에 대한 어머니의 사사롭지만은 않은 욕심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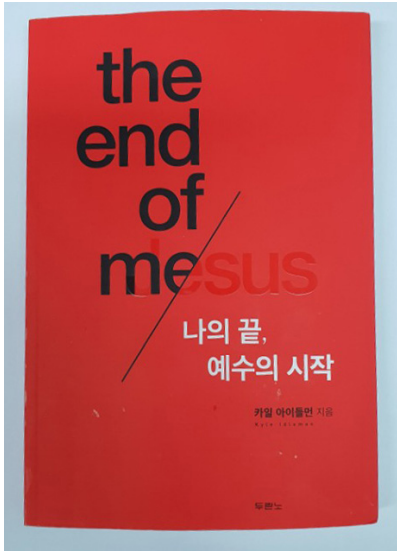
그리고, 2018년 8월 26일,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서울교회에서, 이종윤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제노 오희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딸로, 서울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이 일 앞에, 나의 가장 은밀한 소원까지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경이로운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 하시며 재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대신 찬송의 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손길로 오늘 우리 서울교회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그리고 희엘이의 서울교회!!



나의 끝, 예수의 시작



허숙 권사 (11교구)

흑독했던 여름을 뒤로 하며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의 길목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강해서 책을 펴기도 전에 저자의 메시지가 온 몸으로 전해져왔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 표지가 강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실재를 만나는 현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나

없이 벼랑 끝에 서있는 이 시대,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인생을 살만큼 살았다고 하는 이들도 절망의 출구를 잃어버린 오늘! 바로 오늘 나의 끝, 우리의 끝에서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평탄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시적인 복을 누릴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역설적이고 반직관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책은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 '나의 끝,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라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4개의 chapter가 있는데 저자는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나는 깨어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의 삶과 보이는 삶이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쁜 마음으로 섬기던 서울교회의 분쟁이 오랜 시간 이어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저마다의 끝을 경험했고, 우리가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절망할 때마다 예수님은 출구를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바람 한 점 맞아보지 않았던 우리가 온 몸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맞고서야 진정한 애통함을 알았고, 다투어 흘렸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그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읊과 같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재를 보았던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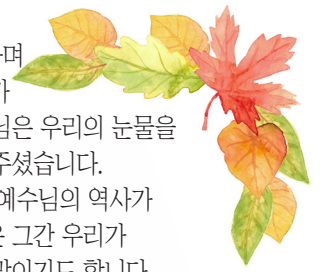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했고,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끝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은 그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내가 있고,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꿔놓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을 재조명해보는 짧은 순간이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 정

- **득녀** : 6교구 백진 집사 김윤지 집사 가정
- **금주의 식사** : 유산슬담방
최홍열 집사 오충래 권사 가정
(기도 응답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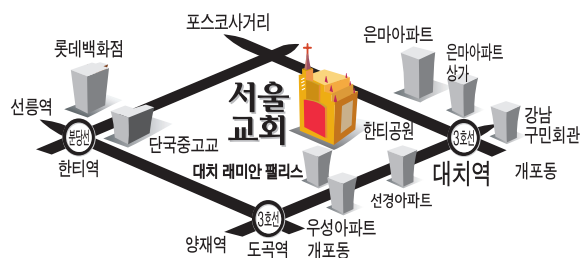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16일	주일	단 8-12		욘 15-21	
9월17일	월	호 1-5		욘 22-28	
9월18일	화	호 6-8		욘 29-37	
9월19일	수	호 9-14		욘 38-42	
9월20일	목	을 1-3		시 1-11	
9월21일	금	암 1-9		시 12-21	
9월22일	토	욘, 온 1-4		시 22-3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